

## 동북아시아 개막과 함께 인재 확보 경쟁 심화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는 한국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건설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북아 중심 국가 프로젝트 전담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것이다. 이 정도 노력이면 동북아 경제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것이며 우리 벤처기업들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인재유동 및 집중화 현상 심화

동북아시아시장은 권역별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인 힘들에 의하여 새로운 추세와 특징들을 연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 중 한 특징이 인재유동이며 이는 자원에 있어 열세에 놓여 있는 우리 벤처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일본 제조업의 상징적 존재였던 히타치는 최근 악화하는 업적을 만회하기 위하여 중국에서의 SI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히타치는 현재 약 250명의 SI기술자를 중국에 가지고 있는데, 3년 후에는 이를 2000명 규모로 늘려 일본뿐 아니라 세계의 메이커에 설계, 개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상해와 북경에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대상은 중국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인재의 중국진출은 사업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인재파견회사 테스크스는 중국 기업에 일본인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새로이 채택하였다. 과거 개인적 레벨에서 일본인 엔지니어가 중국기업에 스카우트 되는 일은 있었으나 재무, 회계를 포함한 사무직까지 인재를 수출하는 것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중국으로의 인재집결은 일본인의 이동 이전에 심화되고 있었다. 서구에서 교육 받은 중국인의 귀향러쉬에 이어 대다수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우수한 사원들을 파견하게 되었다. 대만의 경우에는 IT생산의 36%가 본국에서 이루어지고 47%가 중국에서 행해져 자금과 인재의 유출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북경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아시아의 다른 어느 도시의 외국인학교보다 우수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에 존재하는 외국인 공동체의 우수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인식하는 외국기업이 아직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위협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도 인재유치 노력 필요

한국의 인재가 유출된다면 먼저 벤처기업들이 타격 받을 것이다. 일본의 자스네트라는 벤처기업은 우수한 IT환경에서 훈련받은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일본에 소개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양국의 정부가 IT자격의 상호인증을 도입하여 비자의 발급을 완화하는 협정을 맺음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IT인재난을 겪고 있는 일본기업에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며 한일관계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지만 인재유출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국경을 넘어 인재를 포함한 각종 자원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은 이 시대의 삶의 논리이다. 따라서 한국 인재의 유출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우리도 아시아에서 자유로이 인재를 유치해 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 절강성의 Ningbo(寧波)는 과거 아시아 해적의 자유항이었다. 수백년전 여기를 드나드는 해적선이 인재를 자유로이 구성하였다면 지금의 벤처기업은 말할 나위도 없다.